

# 터미널 인수 광주신세계, ‘장애인 이동권’ 소송 피고되나

항소심 첫 재판서 원고 측 1심 기각  
금호고속 상대 ‘편의제공’ 청구 내용  
승계 필요 주장…사업자 지위 쟁점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리  
프트 도입 등을 촉구한 ‘이동권 보장’ 소송의 2차  
운드가 치열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특히 원고 측에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사업  
자 지위를 승계한 (주)광주신세계 역시 소송에 참여  
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항  
소심의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7일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등  
5명의 장애인이 금호고속(현 금호익스프레스)  
과 광주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항  
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와 피  
고 측 쌍방의 항소로 열리게 됐다.

앞서 원고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  
구의 인용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기각된 청구 내용 중 이날 쟁점으로 떠오른 건  
종합버스터미널 내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편의  
시설 부재 문제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선 교통 사업  
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1심에서 인정된 ‘휠체어  
탑승장비(리프트)’ 도입 외에도 금호익스프레  
스 측에 전용 승하차 플랫폼 설치와 휠체어 승강  
설비 등 편의 제공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를 교통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건 지난해 3월  
광주신세계가 금호고속과 양수·책임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면서 여객선터미널사업면허도 같이  
양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신세계는 광천터미널에 붙어 있다  
시피 한 현재 백화점의 확장 등 변화를 위해 계  
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 측에선 이날 사업면허가 광주신세  
계에 넘어간 게 맞는지 사실 조회가 필요하고,  
이전됐다면 소송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입  
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광주신세계의 소송 참  
여 여부 확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항소 이유로 “신규 도입

시외버스 전체(우등·일반)에 대해 휠체어 탑승  
장비를 도입하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우등  
버스에 휠체어 장비를 설치하라면 전체 28좌석  
중 7좌석을 절거해야 하는데, 25%의 손실 부담  
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 우등이나 일반이나 설치 장비에는 차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는 어떤 버스를 타든 똑같다  
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근 쟁점이 유사한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설치 대상 노선이 특정된 것처럼 이  
번 소송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범위를 일부로 한  
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프리미엄까지 도입되면  
서 일반 버스는 줄어가는 추세이고 현재 운행되는  
모든 노선에서 우등 버스가 가장 많다”며 “휠  
체어 장비가 고정형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한  
만큼 노선을 특정할 게 아니라 예약 현황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점에하게 대립함에 따라 재판  
부는 내년 3월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  
연대는 광주지방·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소송은 한 개인의 이동 문제가 아니  
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를 묻는 싸움”이라며 “장애인 자유롭게 이동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  
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재영 기자



AI 실증 스마트 쉘터

지역 창업 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시민 참여 혁신기술 실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첫날인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정류소에 설치된 스마트 쉘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실증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 “붕괴” 광주대표도서관 작업계획서 등 확인 안돼”

정준호 의원 “허가서류도…미작성 의혹”

김일환 원장 “작성 안 됐을 수도” 답변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일  
부 작업에 대한 계획서와 위험 공정 사전 작업 허가  
서류가 발견되지 않아 미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대

표도서관 건설 사고 초기 현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 기계 사용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8일 이후에 대한 위험 공정 사  
전 작업 허가서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서류 미작성  
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면 주먹구구로 작업이 이

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서류를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  
했다”며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대표도서  
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층 육  
상이 무너져 지상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이 연  
달아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잔  
해에 매몰된 4명은 사고 발생 48시간 만에  
모두 수습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안재영 기자

## 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관계자 입건

### 광주시 중처벌 적용 여부 등도 검토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해 노동당국이 공사 관계자를 입건했다.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중대  
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관계자 A씨  
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  
평동 옥상무소각장 부지에서 진행 중이던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  
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은 숨진 4명의 근로자 중 1  
명이 광주시가 발주한 업체 소속인 사실을 파악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  
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발주 업체 소속 근로자는 가장 늦게 수  
습된 50대 배관공으로 알려졌다.  
앞서 숨진 노동자들에 대해 행정·수습 당국에  
선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밝혀왔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며 “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입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천웅 기자

### “광주시립예술단 인사 비리 의혹”

최근 단행된 광주시립예술단 전보인사가 6시  
간 만에 변경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시립예술단지부는 17일 광  
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발표  
된 전보인사가 당일 오전 논의된 안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전당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밝  
혔다.

이어 “인사 담당 실무자와 관련 부서 인력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인사안이 변경·결정  
됐다”며 “명확한 인사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전보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인사 폭주”  
라고 비판했다. /윤천웅 기자

### 지역 노동계 “광주시, 건설 안전 대책위 꾸려야”

광주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광주대  
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와 광주  
민중의집,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7  
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  
동 철거,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또 다시 반복

된 중대재해는 광주시의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붕괴돼 있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 시공 이전에 이미 사고가 날 수밖  
에 없는 구조적 관행이 현장에 만연해 있다”며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조합, 사회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대책위원회’를 대책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광주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집행력을  
갖춘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붕괴·참  
사의 도시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건설 산업 구조를 만  
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천웅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_Nice Shot  
상급자용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풍나무 / 고탄성 카본 / 활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A100\_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원천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풍나무 / 고탄성 카본 / 활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블루스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풍나무 / 고탄성 카본 / 활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www.sunparkgolf.com